육계인이 본 미국육계산업과 우리의 자세

정용길/예원농장 대표

1. 머리말

본인을 비롯한 국내 육계관련업계인사 8명은 미사료곡물협회 한국지회 주선으로 지난 9월21일부터 10월6일까지 15박 16일동안 미국육계산업 시찰기회가 있었다.

최근 농축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높은 가운데 미국육계산업은 과연 어느정도 수준인지, 우리의 대응방안은 무엇이겠는가에 관심이 모아지던차에 이번 여행은 큰의미가 있었다.

미육계산업 시찰을 마친 지금의 심정은 예상했던대로 그들은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우리 육계산업이 그들과 싸워 생존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부로 느꼈다.

미육계산업을 간단히 평가해보면 kg당 육계생산비가 약 5백원선으로 우리의 60%수준이고 관리자 1인당 8시간기준 관리수수는 10만수정도, 미국인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연 29.8kg 그리고 육계산업이 1백% 계열화체계로 되어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현시점에서 한국 육계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역시 그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있는 일본의 경우 닭고기 수입이 개방되면서 미국 닭고기가 물밀듯이 파고들어 금년도에 30만톤 이상이 수입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총생산량의 21%, 88년 총생산량 144만톤)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말 닭고기 생산량이 약 15만톤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 일본수입량이 우리 생산량의 2배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우리 육계산업 여건은 아직 일본보다는 유리한 면이 많아 정부, 업계가 합심 노력한다면 육계 kg당 생산비를 6백원대까지 떨어뜨릴 수 있어 국제경쟁력 확보는 물론 닭고기 최대수입국인 일본에 수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2. 미국 육계산업현황

1) 계열화정착

미육계산업현황은 88년말 기준 총 계육생산량

이 7백34만톤으로 약 50억수가 사육되고 있다. 미농무성자료에 의하면 89년도에 닭고기 29.8kg, 칠면조 7.5kg 등 가금육소비가 36.6kg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95년도에 가면 1인당 소비량이 49.3kg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쇠고기는 95년도에 28.2kg, 돼지고기는 95년도에 27.3kg으로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 닭고기가 육류소비를 주도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 닭고기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미육계산업이 100% 계열화체계로 돼 있어 높은 생산성을 통해 타육류보다 값싸게 닭고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과 계열주체측이 새롭게 다양한 닭고기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활발한 홍보활동을 통해 소비자 기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백육인 닭고기가 적육인 돼지고기, 쇠고기보다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소비자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가올 것으로 기대돼 육계산업의 앞날은 일단 매우 밝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우리보다 닭고기를 9배정도 많이 섭취하고 있으면서도 향후 10년동안은 계속 연3% 정도 신장이 예상되고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미육계산업 역시 지난 5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개별경영에 의존, 산지육계가격 등락폭이 매우 극심했고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사육농장이 쓰러졌고, 과도한 사료외상값 때문에 부도가 많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50년대 후반이후 육계산업의 안정을 위해서는 유통분야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도계장이 중심이 되어 생산과 유통을 연결하는 계열화작업이 전개,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계열화란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제반관련사업을 주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관장하는 통합경영체계를 의미하며 이 경우 사료, 병아리 등 원자재의 원가절감과 가공 유통단계에서도 원가절감 및 수익이 발생, 산업안정은 물론 급속한 발전이 가능해진 것이다.

미육계산업 경우 이와같은 계열화체계로 산업구조 조정을 단행한 결과 26.5%의 생산비 절감이 가능했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다.

따라서 현재 미육계산업은 도계장 등 계열주체 책임하에 사육농가는 기계화된 대규모농장을 가지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고 있었다.

버지니아주 경우 육계농가가 농축산업 분야에서 수익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계사시설 자동화

미국 육계농가는 대부분 부업으로 계열주체와 협조하에 3만~5만수 정도를 사육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계사는 동당 2만수 정도를 수용하는 대형계사로 급이, 급수, 환기 등이 완전 자동화돼 있어 관리자는 기계고장유무 등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미육계사육은 일반적으로 폭 40자, 길이 4백자 크기 계사에(4백50평)1.8kg 육계 2만1천3백수, 소형닭(0.9kg)8천7백수를 사육하고 있다.

즉 처음에는 계사를 칸막이로 구분, 암수구분 사육을 실시, 암컷은 2파운드(0.9kg)에서 출하시키고 수컷은 4파운드(1.8kg)까지 키우는 방식으로 연 6.2회전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 계사의 경우 연간 총 육계생산량이

① 2만1천3백수 × 95%(육성율) × 4파운드 × 6.2회전 = 50만1천8백28파운드(22만8천1백3kg)

② 8천7백수 × 97%(육성율) × 2파운드 × 6.2회전 = 10만4천6백43파운드(4만7천5백65kg)등

총 60만6천4백71파운드(2만5천6백68kg)에 달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4백50평계사에 평당35수씩 1.8kg짜리 연 4회전 사육이 일반적으로 연간 총생산

량이 11만3천4백kg에 불과해 미국이 우리보다 2.4배 많이 길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또 미국은 이와같은 계사 2~4동을 운영하면서 부인 또는 가족이 하루에 3~4시간만 관리하면 충분하다.

타이슨사 위탁사육농장인 한 농장경우 4백50평형 계사 4동을 부인이 혼자서 관리하고 있고 입추 10일령까지만 1일고용으로 1명을 이용하고 중학생인 아들이 도와주고 있다고 했다.

우리경우도 현재 인력난이 심각하고 관리당 사육수수가 1만수에도 밑돌고 있는 실정에서 계사 대형화 및 자동화는 필수요소로 판단된다.

한편 이와같은 계사 건축비는 84년당시 동당 5만달러로 소개했으나 현재는 7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지역은 남부지방인 알칸소주에 위치 동절기 난방에도 별문제가 없고 습도, 온도조절을 위해 천정에 스프링쿨러를 설치, 사용하고 있었다.

환기는 양벽면에 윈치커텐을 설치, 자동으로 개폐되면서 조절하고 있고 계사중앙에 대형팬이 설치되어 있다.

타이슨본사 근처에 있는 SIPCO라는 축산 기계제작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사료급이 기용 파이프 10자에 7달러, 모이통이 6달러, 콘트롤박스, 모타 등이 120달러, 호퍼가 58달러 정도로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SIPCO사의 윈치커텐용 타포린, 승강기, 모타 등 대부분 부분품이 한국에서 수입되고 있었다. 따라서 국내 축산기자재업계 역시 미국이상의 제품을 만들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타이슨사가 추정한 평균 농가소득을 보면 4백50평 계사동당 연간 2만1천7백65달러(1천80만원)(4파운드 : 21,300수, 2파운드 : 8,700수, 6.2회전 사육시)에 달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골든폴튜리계열 위탁농장은 지난 88년 봄에 40자 × 450자(500평)계사를 신축했는데 당시 7만5천달러정도 소요됐다고 밝혔다.

또 오하이오주 소재 케이스팜 계열 위탁농장은 신축계사로 폭 40자, 길이 5백자(5백62평)의 대형계사였다. 이 계사는 4.6파운드(2.09kg)용 닭 2만7천수를 수용하여 연 7회전 사육을 하고 있다.

계사시설비는 총 10만3천불(7천만원)에 달했고 이중 건축비가 7만3천불, 기계설비가 3만불정도인 것으로 소개됐다. 따라서 계사건축비가 평당 8만8천원, 내부기계시설에 평당 3만6천원 정도로 합하면 평당 12만 4천원 정도에 달하고 있다.

계사는 모두가 갓쇼를 이용한 완전계사형태이며 단열을 위해 벽·천정에 4인치두께의 인슈레이션을 사용했고 벽 내부는 합판, 외부는 함석, 지붕도 함석을 씌웠다.

기계시설은 급이, 급수, 환기 등이 완전 자동화돼 있어 계군이 층아리하나없이 고루 자라고 있었고 환기가 잘돼있어 계분을 매 출하시마다 치우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차례씩만 치워내고 있었다.

이 농장은 시내에 가게를 하는 자가 부업으로 하루에 3시간정도 관리로 연간 3만불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계사시설비는 대부분이 은행금융을 신용대출로 이용, 7~10년정도 장기분할상환 형태로 갚는 방식, 계열주체측은 그동안 책임지고 농가수익을 보장 해주므로 사육농가는 위험부담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계사건축은 기초공사로 지하에 벽돌 석장, 지상에 벽돌 한장정도 쌓고 있었으며, 이 지역은 특히 우리나라처럼 날씨가 변덕스러워 무창계사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다만 햇빛투과를 위해 양쪽벽에 20cm넓이로 비닐을 이용 투광막을 만들어뒀다. 환기는 무창계사인 관계로 음압식 환기를 이용하고 있다. 이 지역 인건비는 시간당 4.5달러(3,060원).

한편 계사시설비는 주로 은행금융을 신용대출

로 이용하고 있고 7~10년정도 장기분할상환하고 있다. 금리는 연 10~12%, 이 농장 사육실적은 4.6파운드(2.09kg)도달일령이 47일, 사료효율은 2.0으로 소개했다.

3) kg당 생산비

미국의 육계 kg당 생산비는 4백75원에서 5백25원선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제공한 육계생산비 현황을 보면 병아리가 kg당 57~67원으로 마리당 1백10원이내로서 현재 우리의 4백원 병아리와 비교하면 큰차이가 나고 있다.

표2. 미국kg당 육계생산비

항 목	kg당 비용
병 아 리	56.85-67.32
사 료 비	351.56-374
백 신 비	2.99-5.98
연 료 비	7.48-14.96
깔 짚 비	1.5-2.99
사 육 비	52.36-59.84
소 계	472.74-525.09
운 송 비	2.99-4.49
도 계 비	119.68-149.6
계	595.41-679.18

사료비 경우는 미국이 kg당 3백 74원으로 89년 4월 대한양계협회가 추정 집계한 사료비 4백75원에 비해 1백원이 낮다.

이밖에 백신, 연료, 깔짚 등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고 있지만 주요인은 사료의 병아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병아리 가격이 이처럼 낮을 수 있는 것은 계열주체에서 직접 품종까지도 소유하고 종계를 위탁시킨 다음 종란을 수거해 자체부화장에서 부화, 계열농가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열화란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제반관련사업을 주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관장하는 통합경영체계를 의미한다.

이때 병아리에 대해 마렉, 뉴캣슬백신 등을 철저히 해 전염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료의 경우도 인근 주산단지에서 최대한 싸게 구입해 온 원료를 육계전문사료만을 24시간 가동시키며 생산해 내다보니 값싸게 생산이 가능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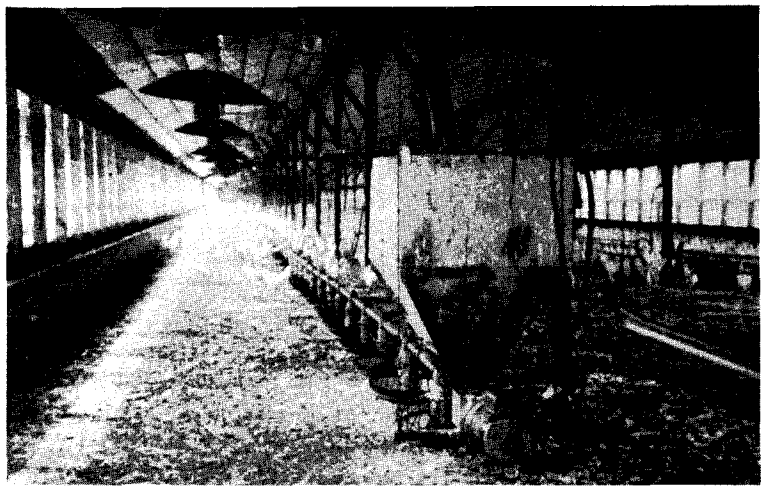
타이슨의 한 계열사료공장은 연간 50만톤 생산규모로 24시간 가동에 관리인이 총 25명에 불과했다(낮 8~9명, 저녁 4~5명).

반면 국내에서도 계열화한 경우 노력을 하게 되면 kg당 6백50원선까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하루속히 국내육계산업의 계열화 체계로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닭고기 최대 수입국인 일본경우 kg당 생산비가 8백원선에 달하고 있고 인건비, 지대 등 제반여건에 의해 더이상의 생산비절감은 곤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우리도 노력하게 되면 대일 닭고기 수출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다.

3. 우리의 자세

우리의 자세 즉 현상황에서 국내 육계업계가 취해야 할 방향은 한마디로 미육계산업 수준과 비슷

육계산업은 계열화체계로 구조구정을 하고 계사시설개선 등을 하게 되면 kg당 6백원대에 생산이 가능, 미국 닭고기 침입을 막는 것은 물론 일본에 신선육으로 수출도 충분한만큼 수출산업으로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 정도나마 좇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kg당 9백원에 달하는 생산비를 여하이 그들과 근접하게 다운시키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육계산업구조를 계열화체계로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개별경영체계로서는 농장차원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별다른 생산비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 이는 병아리, 사료 등 원자재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반면 계열화체계가 될 경우 사료, 병아리 등이 원가선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20%이상의 원가절감이 가능해지게 된다. 현재 우리 육계업계도 다행스럽게 계열화추진 움직임이 있고 정부에서도 계열화를 통한 육계산업안정을 정책으로 삼고 있어 업계, 정부 모두가 합심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계사시설개선 문제다. 계열체계만으로도 부족한 것이 계사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기계화가 안돼있어 생산성저하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 최근 야기된 인력난에 의해 인력에 의한 육계사육은 곤란한 실정에 와있다.

따라서 우리 육계업 역시 계사의 대형화,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향상은 물론 인력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 문제가 되고 있다. 농장에서 현금능력은 거의 없고 미국, 일본처럼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실정에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도 농축산물 수입개방 압력과 관련 농어촌 종합발전대책으로 국내 농축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것 같아 육계업계는 이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축사시설개선 자금으로 상당액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육계산업은 계열화체계로 구조구정을 하고 계사시설개선 등을 하게 되면 kg당 6백원대에 생산이 가능, 미국 닭고기 침입을 막는 것은 물론 일본에 신선육으로 수출도 충분한만큼 수출산업으로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육계산업은 업계와 정부가 합심 노력하면 산업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고 만약 현상태에서 방치된다면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양계